

트럼프 시대 美-中 경제관계 전망과 시사점

2016. 12. 09
연구위원 이정진

1. 트럼프의 對中 정책과 미-중 갈등
2. 트럼프 對中 정책의 중국에 대한 영향
3. 평가 및 전망
4. 한국에 대한 시사점

[요약]

■ 트럼프, 대선 기간 중 강경한 對中 정책 기조를 표출

- 트럼프의 對中 정책은 현실적인 당면 이익에 근거하여 통상에서의 보호무역주의와 환율조작국 지정, 외교에서의 실리주의 등으로 나타남
- 당선 이후 대만을 둘러싸고 미-중간 외교 신경전이 연출되고 있으며, 미국 新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대부분 극보수적 성향을 보이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중국 수출 및 위안화 가치 등에서 부정적 영향 예상

-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여 압박할 경우 위안화 환율 변동성 확대 및 자금유출 심화 가능성이 있음
-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 부여 등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경우 중국의 대외수출에 적지않은 영향이 예상됨
- 외교 방면에서는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반면, 중국에게는 영향력 확대의 호기로 작용할 것임

■ 장기적으로 양국간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트럼프 정권 초반 합의 과정 중의 마찰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는 불가피할 전망

- 트럼프 집권 초기 미국은 중국에 대한 보호무역을 강화할 것이고, 남중국해 분쟁, 북한 핵문제, 양안 관계 등에 대해서도 중국을 향해 날선 공격을 할 가능성이 큼
- 그러나 초기에는 갈등과 마찰이 발생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안정적이고 견고한 대중 정책으로 정착할 것으로 전망

■ 한국은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 재편 및 대외수출 급감 가능성 등의 불확실성에 대비할 필요

- 미국이 향후 고립주의를 고수한다면 그간 세계의 경찰로서 역할하던 패권국 지위가 축소될 가능성
- 미국의 대중 무역제재가 강화될 경우, 중국의 대응 방식에 따라 원-위안 환율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미-중간 무역분쟁 격화 시 한국 경제에 대한 충격이 불가피하며 채수출용 비중이 높은 전자, 반도체 등 소재산업의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



1. 트럼프의 對中 정책과 미-중 갈등

■ 트럼프, 대선 기간 중 강경한 對中 정책 기조를 표출

- 트럼프의 對中 정책은 현실적인 당면 이익에 근거하여 통상에서의 보호무역주의와 환율조작국 지정, 외교에서의 실리주의 등으로 나타남
 -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의 수출보조금 제도와 잘못된 노동 및 환경 기준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주장
 - 중국이 지적재산권·저작권을 침해할 시 적극 대응할 것이며 법인세 인하를 통해 미국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등의 강경한 보호무역주의를 주장
 - 중국과 관련된 안보문제 역시 산술적 경제논리로 접근하여 중국과 통상문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압력수단으로 南·東중국해에 미국 군사력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

[표 1] 트럼프의 對中 정책 주요 내용

분야		내용
통상		• 미국 기업 및 시장에 대한 보호무역주의와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사이버공격을 통한 기술과 기업기밀 절취 및 도용 등에 강력히 대응
안 보	미-중 양자	• 공동이익 모색(트럼프) • 마오주의로 회귀하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공화당 강령) - 중국이 주장하는 핵심이익(티벳, 신장위구르, 홍콩 등)에 대한 문제제기
	남중국해	• 중국의 남중국해 확장정책 비난(공화당 강령) - 단,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응해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시
	북핵	• 북한/북핵에 대한 강경한 대처와 함께 북한 문제에서의 중국의 역할수행 강조
	대만	• 양안관계의 현상유지 지지

자료: 외교안보연구소

- 당선 이후 미-중간 외교 신경전이 연출되고 있으며, 미국 신정부의 내각 인선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공개된 장관급 인사들 대부분이 극보수적 성향을 보이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 1979 년 미국과 중국이 수교한 이후 처음으로 트럼프 당선인이 대만 차이잉원(蔡英文) 총통과 통화한 가운데 중국은 하나의 중국(一個中國)을 훼손했다며 비난하며 원칙을 지켜줄 것을 강력히 요구
 - 이에 트럼프는 중국이 위안화를 평가절하하거나 미국의 중국 수출품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할 때 등 사전에 미국에게 공지 해줬는지를 거론하며 대응

- 금번 사건은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대중강경 노선으로 대만을 이용한 것으로 관측되면서 향후 양국 간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 증대
- 특히 트럼프 신행정부 요직 인사 구성 중 무역정책을 주관하는 상무부와 무역대표부 장관으로 윌버로스(부도전문 투자자)와 댄 디미코(前 누코르 CEO)가 유력
- 이들의 공통점은 자유무역에 상당히 비판적어서 향후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

[표 2] 트럼프 신행정부의 주요직 인사 성향

직위	인물	전직	성향
부통령	Mike Pence	인디애나주지사	• 자유무역주의, 낮은 법인세 지지 • 결혼, 낙태, 이민 등 사회적 이슈에 보수적
비서실장	Reince Preibus	공화당 전국 위원회 의장	• 전형적인 공화당원 • 당의 반 이민 입장 철회 주장
수석전략가	Steve Bannon	Breitbart News CEO	• 각종 음모설 제기, 극보수적 성향 • 트럼프 미디어 전략의 핵심 고문
법무장관	Jeff Sessions	앨러배마 상원의원	• 인종차별 혐의, 반이민정책 옹호, 자유무역 반대 • 재정지출 규모 제한 및 최소화
CIA 국장	Mike Pompeo	켄사스 하원위원	• 하원 안보위원장, 클린턴의 리비아 개입 비판 • 이란과의 협정 반대, 미국내 통화내역 기록 찬성
국가안보 보좌관	Michael Flynn	전 CIA 국장	• 민주당원, 소극적인 오바마의 대테러 정책에 실망 • 고문 활용에 수용적인 태도
상무장관	Wilbur Ross(유력)	부도전문 투자자	• 부도기업 인수 전문 • 한미 FTA 비판
무역대표부	Dan Dimicco(유력)	Nucor CEO	• 중국 무역정책 비판, 한미 FTA 비판 • 자유무역에 회의적

자료: 언론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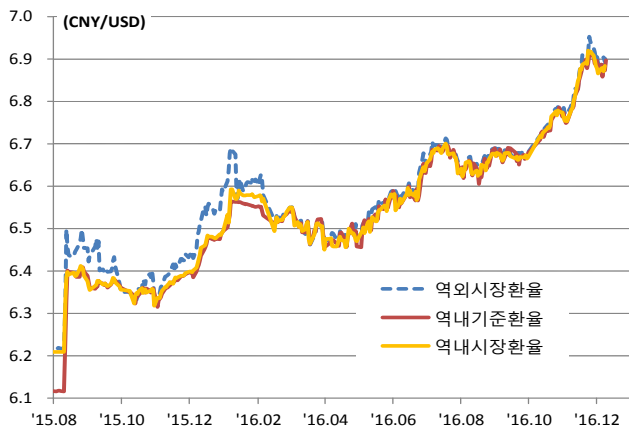
2. 트럼프 對中 정책의 중국에 대한 영향

■ (환율조작국 지정) 위안화 환율 변동성 확대 및 자금유출 심화 가능성

- 트럼프가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라 공언함으로써 위안화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고 자본의 해외 이탈 우려감이 고조
 - 즉 환율 조작국 지정 → 위안화 변동성 확대 → 자금 유출 심화 → 중국 금융위기 발생의 부정적 시나리오 현실화를 우려
- 위안화 對달러 환율은 위안화의 SDR 편입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였고, 최근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외환시장 불확실성이 가중되며 달러당 6.8 위안을 상향 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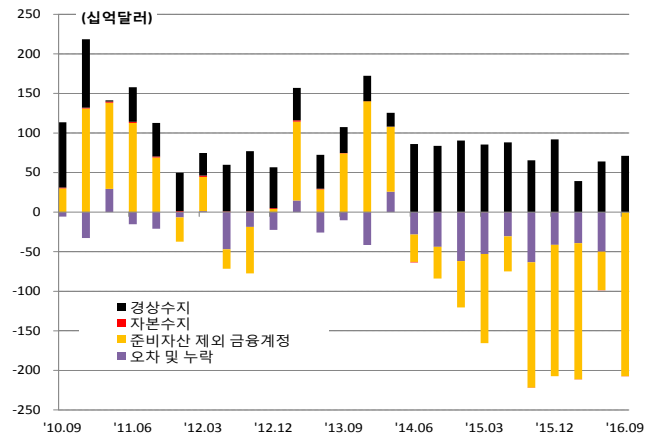
- 국제수지 상에서 작년 하반기~금년 1 분기에 금융계정과 오차 및 누락에서 대규모의 자본 유출이 있었다가 2 분기에는 유출규모가 축소되었으나, 지난 3 분기에 다시 금융계정을 중심으로 자본유출이 확대

[그림 1] 최근 역내외 위안화 對달러 환율 추이



자료: CEIC

[그림 2] 중국 국제수지의 분기별 자본유출입 규모



자료: CEIC

■ (보호무역주의 강화) 불공정 무역 품목을 지정하고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를 부여해 중국을 압박

- 고율의 관세 부과가 강행될 경우 중국 수출에 적지않은 타격이 예상
 - Morgan Stanley 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 수출기업의 對美 수출상품의 수입관세에 대한 가격 탄력성은 -1.7 정도로, 즉 對美 수출 상품 가격이 1% 상승하면 2~3 분기 후 중국의 전체 수출은 1.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만약 미국이 중국산 수입상품에 대해 최고 45%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중국의 對美 수출은 71.7% 감소하게 되고, 이에 따라 중국 전체 수출은 12.8% 감소
 - 중국 최대 증권사 CICC 의 분석에 의하면 미국이 45%의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의 對美 수출은 21%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중국 전체 수출의 4.1%이며 GDP 의 약 0.9%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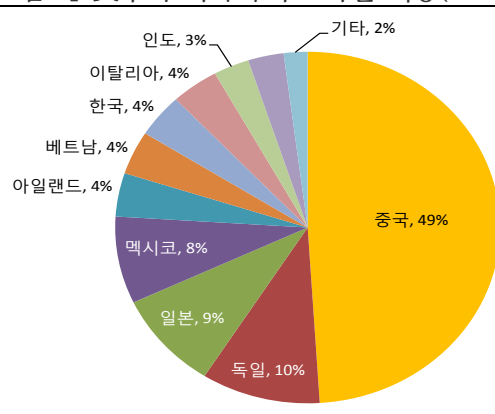


[표 3] 관세율별 중국 수출에 대한 영향

	시나리오①	시나리오②	시나리오③
관세율(%)	15.0	30.0	45.0
관세율 변동(%p)	12.2	27.2	42.2
중국의 對美 수출 영향(%p)	-20.7	-46.2	-71.7
중국의 전체 수출에 대한 영향(%p)	-3.7	-8.2	-12.8

자료: Morgan Stanley

[그림 3] 美무역 적자의 주요국별 비중(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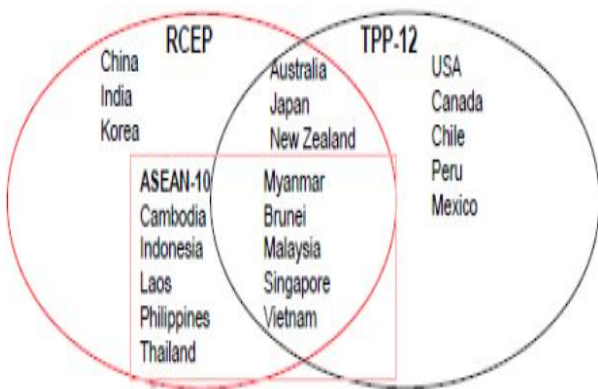


자료: UN Comtrade, CICC

■ (동아시아에서의 美-中 영향력 변화)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반면, 중국에게는 영향력 확대의 호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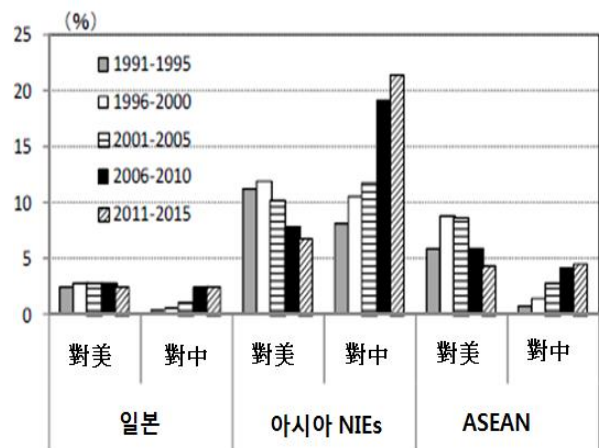
- 중국과 마찰을 빚던 아태지역 국가들이 점차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잃어 중국과의 분쟁 문제에서 더욱 신중해질 것이며, 아태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이미 트럼프 당선 이후 TPP 협상 국가들을 중심으로 중국이 주도하는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에 점차 집중하고 있는 중

[그림 4] RECP와 TPP 신청국가 현황



자료: HSBC

[그림 5] 아시아 주요 지역 對美, 對中 수출의존도



자료: SUMITOMO MITSUI TRUST BANK



3. 평가 및 전망

■ 트럼프 당선에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안화 가치 급락 가능성은 적다는 평가

- 미국 대선 이후 미 달러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약세 흐름을 보인 위안화 환율과 관련하여 그동안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던 인민은행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표명
 - 최근의 위안화 절하 원인으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에 따른 불확실성, 미 연준의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 그리고 이집트의 자유변동환율제 시행 등 외부 요인에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
 - 최근 미 달러화 대비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였지만 여타 국가들에 비해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며, 일부 주요국 통화에 대해서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
 - 또한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 1 위로 충분한 수준이라고 강조하면서 현재의 외환보유액은 중국의 모든 외채와 향후 6 개월 수입액을 더한 것보다 많다고 언급
- 시장에서는 위안화 환율이 합리적이고 균형적 수준에서 안정적이며 세계 여타 통화 중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인민은행의 설명에서 당분간 인위적인 시장 개입은 없을 것으로 전망
 - 다만 인민은행이 환율 안정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지만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 위안을 돌파하면 자본유출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허위무역 단속 등 가능한 자본통제 조치가 추가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

[표 4] 주요 IB 위안화 환율 전망(11/25 일 기준)

기관	3 개월	6 개월	9 개월	12 개월
Barclays	6.90(6.85)	7.05(6.95)	7.10(7.05)	7.25(7.15)
Credit Suisse	7.01(6.79)	-	-	7.33(6.86)
JP Morgan	6.90(6.85)	7.05(6.90)	7.20(6.93)	7.15(6.85)
BNP Paribas	6.95(6.82)	7.05(6.80)	7.15(6.84)	7.29(6.95)
UBS	6.90(6.80)	-	-	-
Goldman Sachs	7.00(6.70)	7.15(6.80)	-	7.30(7.00)
Morgan Stanley	6.82(6.82)	6.94(6.94)	7.05(7.05)	7.17(7.17)
Citi	6.96(6.79)	7.03(6.82)	7.11(6.84)	7.12(6.87)
BoAML	7.00(7.00)	7.00(7.00)	7.00(7.00)	6.90(6.90)
HSBC	6.90(6.80)	7.05(6.85)	7.10(6.85)	7.15(6.90)
Standard Chartered	6.90(6.75)	6.97(6.76)	7.05(6.77)	7.02(6.77)
Nomura	6.98(6.80)	7.10(6.90)	7.20(7.00)	7.25(7.05)
RBS	6.80(6.80)	7.00(7.00)	-	-
평균	6.93(6.81)	7.03(6.88)	7.11(6.93)	7.19(6.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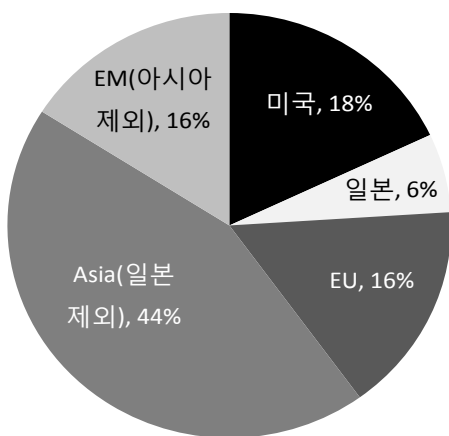
자료: 해당기관 * ()는 10월 28일 전망치



■ 장기적으로 양국간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트럼프 정권 초반 합의 과정 중의 마찰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는 불가피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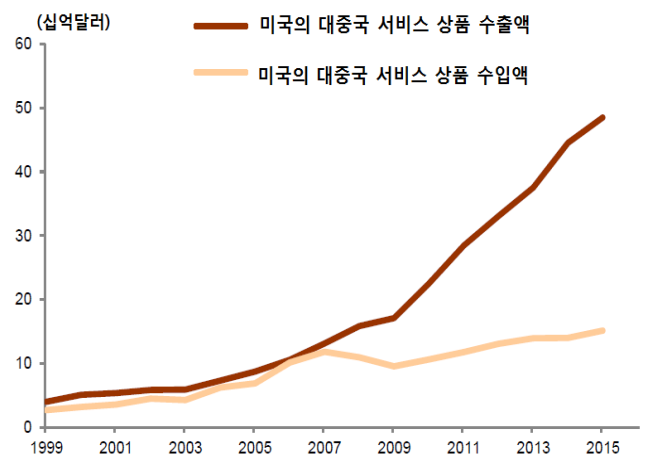
- 트럼프 집권 초기 미국은 중국에 대한 보호무역을 강화할 것이고, 남중국해 분쟁, 북한 핵문제, 양안 관계 등에 대해서도 중국을 향해 날선 공격을 할 가능성이 큼
 - 美 행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거나 중국산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물린다면, 중국은 보잉사 주문 여객기를 에어버스로 바꾸고 자동차, 아이폰 등의 수입을 전면 제한하는 등 보복에 나설 것이라 보도(環球時報)
 - 또한 2009 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산 타이어에 35%의 관세를 물린다고 발표했다가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와 자동차에 대해 고율 관세로 맞대응 한 사례를 들어 미국이 고율 관세를 매길 경우 보복 당할 것임을 경고
- 그러나 초기에는 갈등과 마찰이 발생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안정적이고 견고한 대중 정책으로 정착할 것으로 전망
 - 양국이 본격적인 무역 전쟁을 시행하면 세계시장의 불안이 커지는 것은 명약관화하며, 현실주의자인 트럼프는 인프라 투자 계획에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하는 등 미국의 경제적 실리를 위한 합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음
 - 중국의 미국 내 공항, 고속철도, 멕시코 국경 벽 건설 등에 대한 투자가 실현되면 중국은 자국 제조업의 과잉능력을 수출하고, 트럼프도 중국의 보상을 받았다는 명분이 가능
 - 중국의 수출대상국은 미국 외에 EU 및 아시아 국가 등으로 다변화되었으며, 서비스 상품 교역에서 미국은 중국에 대해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

[그림 6] 중국의 주요 수출 대상국 및 비중(2015 년)



자료: Morgan Stanley

[그림 7] 미국의 대중국 서비스 상품 수출입 규모



자료: CICC



[표 5] 미국의 對중국 조치와 중국의 예상 가능한 대응

미국의 對중국 조치	중국의 예상 가능한 대응
환율 조작국 지정	2015년 8월부터의 환율시장화 개혁 추진 및 SDR 바스켓 편입 성공 등 위안화 환율제도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 지난 2년간 인민은행은 위안화 약세 압력 완화를 위해 8,700억 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고를 사용
징벌적 관세부과	항공기, 자동차, IT, 농산품, 천연가스 등 미국산 수입품 제한 조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결국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귀결
불법보조금 및 지적 재산권 침해 제재	부동산 투자 및 해외송금 등 미국向 차이나머니에 대한 통제 강화 중국의 美국채 보유 축소, 중국 학생들의 미국 유학 제한 등

자료: KB 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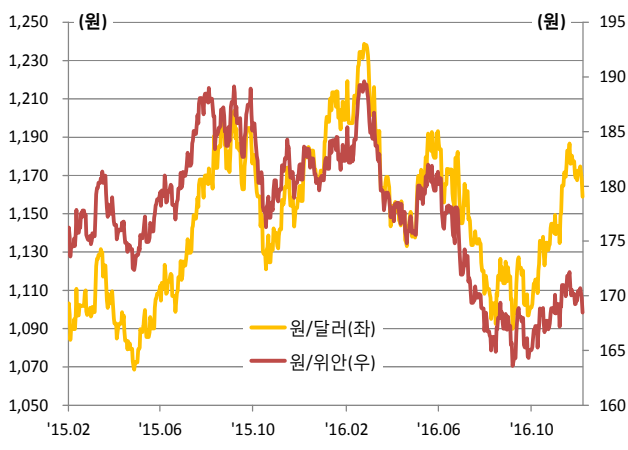
4. 한국에 대한 시사점

■ 한국은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 재편 및 원-위안 환율 변화 등의 불확실성에 대비할 필요

- 미국이 향후 실리주의를 고수한다면 그간 세계의 경찰로서 역할하던 패권국 지위가 축소될 가능성
 - 그간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세계평화, 자유무역 등의 가치를 위해 비용을 지불하며 스스로 희생하는 세계경찰국가의 이미지를 유지해 왔음
 - 그러나 트럼프는 상대국도 이득을 본 만큼 대가를 지불하라는 실리주의와 상호주의적인 비즈니스적 접근태도를 취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미-중 두 강대국의 협상 과정에서 주변국들의 입지는 불안정해질 것이며, 특히 한국은 높은 교역 의존도와 대북정책 불확실성, 국정 공백 등 어려운 난관에 부딪혀 있어 높은 불확실성에 당분간 노출되어 있을 수 밖에 없을 것
- 미국의 대중 무역제재가 강화될 경우, 중국의 대응 방식에 따라 원-위안 환율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에도 불구하고 현재 원화의 위안화에 대한 가치는 달러화를 매개로 하여 원-달러 가치 변동과 위안-달러 가치 변동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결정
 - 금년 2월부터 8월까지 원-달러 및 원-위안 환율은 하향 추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는 상승 추세로 반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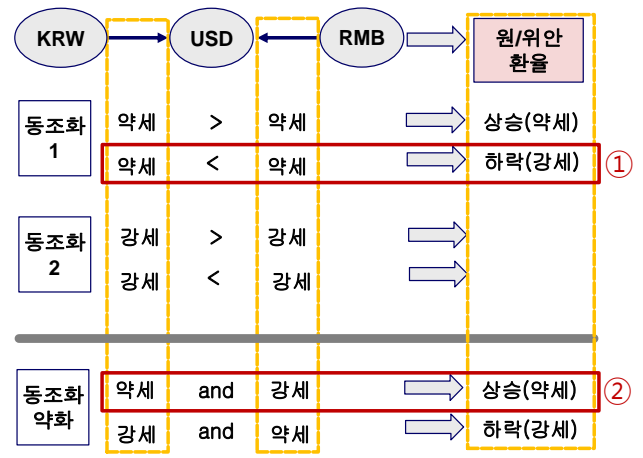
- 만약 중국이 미국의 무역제재에 맞서서 위안화를 급격히 절하(對美 수출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위안화 약세를 통한 수출 확대 도모) 시켜 위안화 대비 원화 강세가 초래될 경우 이는 對中 수출 기업의 수출 경쟁력 약화를 야기할 가능성([그림 9]의 ①)
- 또 다른 가능성은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어 높은 징벌적 관세를 면하기 위해서 위안화 절상 조치를 취할 경우, 원화의 對위안화 가치는 동조화가 약화되며 크게 하락할 가능성([그림 9]의 ②)

[그림 8] 원-달러 및 원-위안 환율 변화



자료: Bloomberg

[그림 9] 원-달러, 위안-달러 가치변화에 따른 원-위안 가치 변화



자료: KB경영연구소

■ 미-중간 무역분쟁 격화 시 한국 경제에 대한 충격이 불가피하며 재수출용 비중이 높은 전자, 반도체 등 소재산업의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

- 미-중 무역분쟁 격화 시 직·간접적으로 한국의 해외수출과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 예상
 -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중국의 비중은 22%(2015년, BOP)로 수출재의 용도에 따라 중국의 소비나 투자를 위한 최종재와 중국의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재로 구분
 - 2014년 기준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최종재 31.3%, 중간재 68.7%로 구성되며, 중간재 수출을 최종 귀착지별로 분해하면 중국이 43.8%¹, 미국이 5.0%, EU는 4.3%, 일본은 2.0% 등 제3국(한국 0.8% 포함)이 24.9%를 차지
 - 미·중간 무역 갈등으로 중국의 對미국 수출 감소가 현실화될 경우 부정적 영향은 두가지 경로를 통해 한국 경제에 파급
 - 직접 효과: 중국의 수출품 생산 감소에 따른 중간재 수요 하락의 영향

¹ 중국 내에서 사용되는 최종재 생산에 투입된 중간재 수출의 비중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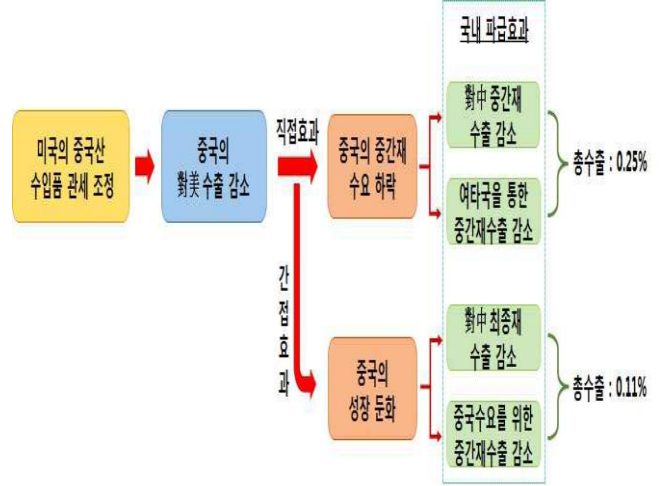
- 간접 효과: 중국의 수출 부진에 따른 중국의 성장 둔화가 초래하는 영향
- 직·간접 파급경로를 모두 감안하면, 중국의 對미국 수출이 10% 감소할 경우 한국의 총 수출은 0.36% 감소할 것으로 추정

[그림 10] 한국의 對中 수출의 최종 귀착지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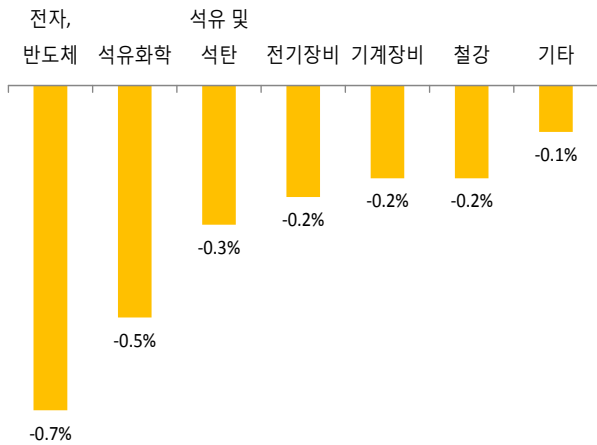
[그림 11] 미-중 무역분쟁 격화의 한국에 대한 영향



자료: 한국은행

- 산업별로는 일반무역 비중이 높은 자동차, 기계, 철강, 식료품 등은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나, 재수출용 비중이 높은 전자, 반도체, 석유화학 등 소재산업의 대중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클 것으로 예상
- 또한 미국 시장에 대한 중국의 수출 비중이 크고, 한국이 대중 수출 중 재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섬유, 피혁 및 신발, 전기기기, 무선통신기기 등)에 재중 한국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
- 특히 대미 수출에 있어 규제가 많은 철강, 석유화학 업종의 경우 중국의 대미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경우 중국 내수시장 경쟁도 격화될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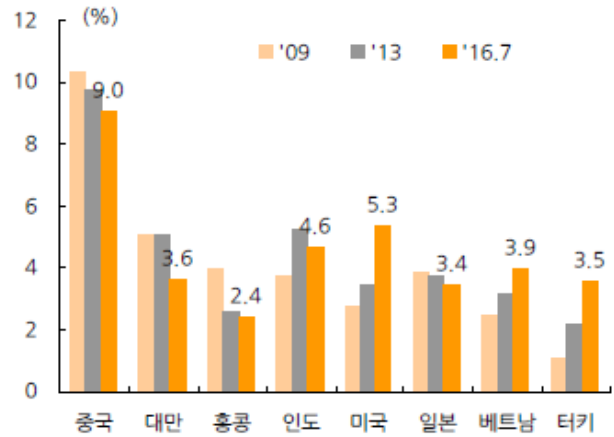
[그림 12] 산업별 수출 감소율*



자료: 한국은행

* 중국의 對美 수출 10% 감소 시 한국의 산업별 수출감소율(각 산업의 수출 감소 규모/산업별 총수출*100)

[그림 13] 한국 석유화학제품의 국가별 수출 비중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금융연구센터 이정진(jungjin.lee@kbf.com) ☎ 2073-5744〉